

「무정」에 구현된 도산의 정의돈수사상과 유행한 사회에 대한 연구

송 현 호*

요약

신문 연재 100주년에 즈음하여 「무정」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문학사적 의의도 새롭게 정립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제3세대 연구자들은 도산과의 관련성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춘원이 무정한 세상에서 유행한 세상 만들기 혹은 억압과 차별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으려는 의지를 심어주고 있다는 새로운 평가를 내놓고 있다.

「무정」에는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일제 강점기에 이르는 조선의 열악한 현실이 잘 드러나 있고, 일제의 억압으로 무정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영채의 삶이 생생하게 형상화되고 있다. 이 작품에서 ‘무정’이라는 용어는 제목을 포함하여 30회에 걸쳐 등장하는데 모두가 영채가 살고 있는 세상과 영채가 처한 현실 그리고 영채를 구원하지 못한 형식의 상황에 집중되어 있다. 춘원이 당시 조선을 무정한 세상으로 본 것은 일제의 식민화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당시 조선인들은 무정한 세상에서 자유롭지도 평등하지도 않은 삶을 살고 있었다.

「무정」에는 ‘동정’이라는 용어가 ‘무정’이라는 용어 다음으로 빈번하게 구사되고 있다. 총 23회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데, 동정을 살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1회를 제외하면 22회에 걸쳐 사용된 ‘동정’이란 단어는 정의돈수사상과 연결되어 있다. 노파는 형식이 영채에게 무정한 사람이었음을 일깨워주면서 박 진사가 형식에게 얼마나 친애한 사람이었는가를 일깨워준다. 노파를 통해 형식은 정의가 되살아나며, 우리 사회를 무정한 사회에서 유행한 사회로 변모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인물로 성장해간다. 춘원은

* 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무정한 세상인 조선을 유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도산의 정의돈수사상을 수용한다. 식민지 수탈 정책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교육하여 일제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자립 경쟁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조선의 지식인들을 양성하기 위해 형식을 교육학의 요람인 시카고대학으로 보내고 많은 유학생들을 구미 지역으로 보낸다. 도산과 춘원의 미국 지향성은 '선진화된 교육의 자양분을 공급받을 공간'을 통해 구체화된다. 그들은 무정한 사회인 조선은 미국과 같은 유정한 사회로 만들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무정』은 지금까지의 평가와 달리 평화에 대한 염원과 유정한 세상에 대한 염원을 담은 소설로 볼 수 있다. 억압과 차별 그리고 미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평등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세상에 대한 염원을 그린 소설, 당대의 징후를 포착하여 새로운 전망을 제시한 소설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이주담론, 무정한 사회, 유정한 사회, 도산, 정의돈수사상

목차

1. 문제의 제기
2. 무정한 세상과 무정한 사람들
3. 도산의 情誼敦修思想의 수용과 유정한 사회에 대한 염원
4. 결론

1. 문제의 제기

『무정』은 1917년 1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126회에 걸쳐 『매일신보』에 연재되었고, 1918년 신문관에서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 지금까지 『무정』 연구는 한국 근대문학 연구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였다. 춘원 연구사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서술될 정도로¹⁾ 춘원

연구가 풍성한데, 그 가운데 「무정」 연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무정」에 대한 방대한 분량의 연구가 축적된 오늘날에 와서도 많은 문제의식과 다양한 방법론에 의해 연구가 진행 중이다.²⁾

「무정」에 대한 최초의 기고문은 김기전의 「무정 122회를 독하다」(『매일신보』, 1917)이고, 신문관에서 발행한 1918년의 단행본에 육당의 머리말이 붙어 있다. 김동인은 『춘원연구』에서 작가로부터 작중인물을 해석하는 독해를 하면서 126회를 ‘사족’으로 취급하고 있다.³⁾ 임화는 마르크시즘적 시각에서 「무정」이 조선이 당면한 과제에 뒤떨어진 사회 개혁 메시지만을 전달하고 있다고 혹평했다.⁴⁾ 백철은 「무정」을 ‘계몽기의 신문학’의 기념탑, ‘초창기의 신문학’의 결산, ‘이 시대의 사조를 일장 대변한 작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⁵⁾ 조연현은 「무정」이 ‘한국 최초의 조직적인 자아의 각성이며, 체계적인 개성의 자각’을 보여준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제1세대 연구자들은 「무정」에 대해 단편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부

- 1) 황정현, 「이광수 소설 연구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2) 송현호, 「「무정」의 이주담론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 『현대소설연구』 65, 2017, 107면.
방민호, 「「무정」 독해의 국면들과 무정·유정의 사상」, 『춘원연구학보』 10, 2017, 52-55면.
이유진, 「일본에서의 「무정」에 대한 평가와 문학사적 의의」, 『춘원연구학보』 10, 2017, 71-106면.
리범수, 「중국에서의 「무정」에 대한 평가와 문학사적 의의」, 『춘원연구학보』 10, 2017, 107-134면.
황정연, 「여성주의적 시각과 「무정」 연구사」, 『춘원연구학보』 11, 2017, 61-92면.
최주한, 「번역된 (탈)근대론으로서의 「무정」 연구사」, 『한국근대문학연구』 27, 2013, 287-313면.
- 3) 김동인, 『춘원 연구』, 신구문화사, 1956, 28-30면
- 4) 임화, 「조선신문학사론 서설」 6-7, 10. 『조선중앙일보』, 1935.10.15.-16, 1935.10.22.
- 5) 박계주 곽학송, 「춘원 이광수」, 『이광수전집』, 삼중당, 1963, 212면.

분적으로는 오독과 편견을 보이고 있다.

제2세대 연구자들은 제1세대 연구자들이 범한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김윤식은 『이광수와 그의 시대』에서 「무정」을 ‘춘원의 자서전’이라 규정한다.⁶⁾ 「무정」에 나타나는 형식의 형상을 이광수의 실제 삶에서 근거를 찾으면서, 「무정」을 춘원의 ‘이십육 년간의 생애를 그대로 투영’한 작품이라고 했다.⁷⁾ 윤홍로는 도산 사상과의 교류관계를 점진주의, 무실역행사상 등과의 관계 속에서 조명하고, 도산 사상과 진화론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민족개조론을 언급하고 있다.⁸⁾ 이재선은 이광수 문학론들을 ‘literature의 역역로서의 문학’론을 집대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⁹⁾ 제2세대 연구자들은 「무정」에 대한 논의를 학문 영역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제3세대 연구자들은 도산과의 관련성에 대해 재조명하기도 하고 새로운 독법들을 선보이고 있다. 당대의 문물, 제도 그리고 이념 등이 작품에 어떤 방식으로 형상화되어 있으며, 이광수 소설에 나타난 ‘근대적 요소’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밝히고 있는 논자도 있고¹⁰⁾, 「무정」이 가진 서사물의 보편적 특질에 주목하여 「무정」이 세계문학의 일부분으로 연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논자도 있다.¹¹⁾ 또

6)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①』, 숲, 1999, 566면.

7) 방민호, 앞의 글, 52-55면.

8) 윤홍로, 『이광수 문학과 삶』, 한국연구원, 1992.

9) 이재선, 『이광수 문학의 지적 편력』,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0, 42-43면.

10) 김경수, 『현대소설의 형성과 집탈-「무정」의 근대적 재론』, 『한국 현대문학과 근대성의 탐구』, 새미, 2000, 121면.

서영채,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사랑의 양상과 의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2.

김지영, 「「무정」에 나타난 ‘사랑’과 ‘주체’의 근대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6호, 2005.

장영우, 「「무정」의 맥락화와 문학사적 의의」, 『춘원연구학보』 10, 2017, 11-42면.

11) 진상범, 『이광수 소설 「무정」에 나타난 유럽적 서사구조』, 『독일어문학』 제17집, 2002.

한 『무정』의 문체를 전적으로 작가의 정신과 창작 활동에 의한 결과물로 보았던 과거의 연구에서 벗어나 소설과 발표 매체, 독자 간의 소통 구조를 둘러싼 종합적 환경의 산물로 보는 연구자도 있다.¹²⁾ 『무정』의 이주담론에 주목하여 춘원의 디아스포라 의식과 유정한 세상에 대한 염원에 주목한 논문도 있다.¹³⁾ 『무정』에 나타나는 무정/유정의 대비법을 도산 안창호와 이광수 사이의 사상적 교호의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는 논자도 있다.¹⁴⁾

방민호는 『무정』 126회에서 유정한 미래를 기약하는 낙관적인 결말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안창호가 쓴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情誼敦修의 의의와 요소』라는 글과 연계시켜 논의하면서 ‘정’의 의미 수준을 시마무라 호게즈, 칸트의 ‘지정 의’론 이전에 안창호의 무정/유정론으로 소급시켜 볼 수 있게 한다면서 『무정』 독해에 있어 126회의 의미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한 시각에서 『『무정』의 이주담론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는 『무정』 텍스트의 다층성과 입체성, 그 넓은 용적을 새삼스럽게 환기시킨다고 했다.¹⁵⁾

필자의 논문은 춘원의 이주체험이 소설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으며, 도산의 실력양성론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를 밝혔다. 그러나 필자는 이형식과 박영채의 이주담론에만 초점을 맞추어 정의돈수사

허병식, 『한국 근대소설과 교양의 이념』,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05.

12) 김영민, 『1910년대 신문의 역할과 근대소설의 정착과정』, 『한국근대소설의 형성과정』, 소명출판, 2005.

이영아, 『1910년대 『매일신보』 연재소설의 대중성 획득 과정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23, 2007.12..

13) 최선호, 『『무정』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의식 연구』, 『춘원연구학보』 제8호, 2015, 83-108면.

송현호, 앞의 글, 105-128면.

14) 방민호, 앞의 글, 61-64면.

15) 위의 글, 65-67면.

상과 무정/유정한 사회에 대한 논의를 연결시키지 못했다.¹⁶⁾ 방민호는 연구사의 특성상 제안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무정」에서 춘원이 추구하고자 한 바가 무엇이며, 그것이 도산의 정의돈수사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혀보려고 한다.

2. 무정한 세상과 무정한 사람들

「무정」에는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일제 강점기에 이르는 조선의 열악한 현실이 잘 드러나 있고, 일제의 억압으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정신적 물질적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무정한 사회에서 살고 있

16) 이재선은 춘원의 문학론의 원천과 형성을 여덟 개의 물음과 해답으로 설명하려고 했다. 이러한 시각은 우리의 근대문학과 문학론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동서의 영향사적 접근 방법으로' 해명하려고 한 것이다.(이재선, 「이광수 문학론의 원천과 형성」, 『춘원연구학보』 4호, 2011, 12-24면.) 한계전 등은 춘원의 문학에 나타나는 정적 분자나 정적 만족을 사랑이나 연애와 결부시켜 설명하였다. (한계전 박호영 송현호, 『문학의 이해』, 민지사, 1987, 293-295면.) 필자는 1980년대 후반 춘원에게 문학은 무엇이며 전시대나 동시대 문학과 춘원의 문학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밝히려려고 시도한 바 있다. 학계에 일반화된 이식 사관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현대소설론의 형성을 우리 소설의 내적 발전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개진하였다.(송현호, 「한국근대소설론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9.1.) 그에 따라 이광수소설론의 핵심인 '情的 滿足'과 리얼리즘적 경향이 坪內逍遙의 「小說神髓」와 二葉亭四迷의 「小說總論」 등과 대단히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정'의 의미를 서구의 '지, 정, 의'론에 입각하여 논의하였다.(송현호, 「한국근대초기소설론연구-춘원의 소설론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01, 1989, 247-253면) 당시 춘원의 문학의 이주담론에 주목하지 못하여 작가의 체험과 문학의 관계를 충분히 밝혀내지 못했다.(송현호, 「문학이란 무엇인가-춘원의 삶과 문학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67, 2017, 3-4면에서 재인용) 도산이 1902년 미국 유학시절부터 유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범촌 건설과 학교 사업을 착수하고 권한 사실과 춘원이 1907년 이후 도산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 사실을 간과하였다. 때문에 도산의 유정한 사회 및 모범촌 조성이 정의돈수사상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도산의 정의돈수사상이 춘원의 '정적 만족' 혹은 '정적 분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다.

는 영채의 삶이 생생하게 형상화되고 있다. 이 작품에서 ‘무정’이라는 용어는 우신사판의 경우 작품명이 표지, 이면 표지, 내지, 목차, 1장 시작 전, 126장 마지막 문장 등에 6회, 본문에 24회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모두가 영채가 살고 있는 세상과 영채가 처한 현실 그리고 영채를 구원하지 못한 형식의 상황에 집중되어 구사되고 있다. 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먼저 무정한 사회와 무정한 세상에 대한 언급은 5회가 나타난다.

그가 위하여 눈물 흘리던 세상은 다시 그를 생각함이 없고, 도리어 그의 혈육을 핍박하고 희롱하도다. 하늘이 뜻이 있다 하면 무정함이 원망스럽고, 하늘이 뜻이 없다 하면 인생을 못 믿으리로다.¹⁷⁾

십구 년 일생의 절반을 무정한 세상과 사람에게 부대끼고 희롱감이 되다가 매양에 그리고 바라던 이형식을 만나기는 만났으나 정작 만나고 보니 이형식은 나를 건져 줄 것 같지도 아니하고……(69면)

영채는 과연 부모에게 대하여 효하지 못하였다. 지아비에게 대하여 정(眞)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도 자기의 의지(意志)로 그러한 것이 아니요, 무정한 사회가 연약한 그로 하여금 그리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98면)

어둡던 세상이 평생 어두울 것이 아니요, 무정하던 세상이 평생 무정할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밝게 하고, 유정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가깝게 하고, 굳세게 할 것이로다.(209면)

인용한 글에 나타난 무정한 사회는 영채가 처한 상황만큼 강렬하

17) 『이광수전집 1』, 우신사, 1979, 23면. 이후 『무정』의 인용문은 면수만 표기한다.

게 나타나 있지 않다. 영채 아버지가 제자의 도둑질로 영어의 신세가 되었다는 설정은 개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춘원이 박 진사 부녀로 형상화한 실제 인물들은 동학 탄압으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서 무정한 세상에 살고 있었다. 『그의 자서전』에 보면 춘원은 애육으로부터 사랑을 독점하고 박 대령의 가족으로부터 사위 대접을 받으면서¹⁸⁾ 살고 있을 무렵 일본 관헌의 동학교도 탄압으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때 박 대령도 서병달과 함께 검거령이 떨어져 고향을 떠나는데, 춘원과 박 대령의 이주 체험은 자연스럽게 이 소설에서 형식과 박 진사 부녀의 이주 담론으로 형상화되고 있다.¹⁹⁾ 그런데 춘원이 일본인의 도움으로 『매일신보』에 『무정』을 연재한 점을 감안한다면 동학운동을 하다가 일제의 억압에 의해 박 진사가 투옥된 것으로 사건을 설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소설은 허구다. 인물이나 사건을 있는 그대로 그릴 수는 없다. 작가의 상상력이 작용하여 인물의 성격이나 나이 혹은 사건도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영채가 무정한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영채는 박진사의 외동딸로 다른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될 정도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으나 부친이 영어의 몸이 되면서 무정한 세상에 남겨지게 되었다.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자 친척이나 이웃들이 영채를 무정하게 대하는 모습이 서술되고 있다. 영채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 평양으로 가는 여정에서 겁간을 당할 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일제의 탄압으로 얼마나 무정한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 그 맘오라버니댁이 사나워서 걸핏하면 욱하고 때리고 함데다. 그뿐이면 참기도 하려니와, 그 어머니의 본을 받아 아

18) 『이광수전집 6』, 우신사, 1979, 326면.

19) 송현호, 『『무정』의 이주담론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 117면.

이까지도 저를 업신여기고, 무슨 맛나는 음식을 먹어도 저희들만 먹고 먹어 보라는 말도 아니해요. 그 중에도 열세 살 된 새서방(계 외오촌 조카지요)이 가장 심해서 공연히 이년, 저년 하였습니다. 어린 생각에도, 내가 제 아주머니어든 하는 마음이 있었어』 하고 웃으며, --- 중략 --- 『---아이들에게 이 오르겠다. 저 헛간 구석에 자빠져 자거라 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제사 때나 명절에 고기나 떡이 생겨도 제게는 먹지 못할 것을 조금 주고 그러고도 일도 아니하면서 처먹기만 한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 중략 --- 이년, 이 도적놈의 계집년, 네가 아니 훔치면 누가 훔쳤겠니 하고 때립니다. 제 부친께서 도적으로 잡혀갔다고 걸핏하면 도적놈의 계집년이라 하는데, 그 말이 제일 가슴이 쓰립니다.』(25면)

영채는 마침내 그 악한에게 붙들려 갔다. 그 악한의 집은 산 밑에 있는 조그마한 집안이었다. 얼른 보아도 게으른 사람의 집인 줄을 알겠더라. --- 중략 --- 그 악한은 아무러한 짓을 하여서라도 돈만 얻으면 그만이요, 술만 먹으면 그만이라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동네에 유명한 험잡꾼이 되고 몸쓸 놈이 된 것이라. 객주에 앉아서 영채의 밥값을 담당함은 잠시 이전 신사의 체면을 보던 마음이 일어남이요, 영채가 계집아이인 줄을 알며 그를 업어 감은 시방 그의 썩어진 마음을 포함이라. --- 중략 --- 이제 겨우 열세 살 되는 영채에게 대하여 색욕을 품는다 함이 이상히 들리려니와, 원래 몸이 건강한테다가 마음에 도덕과 인륜의 씨가 스러졌으니 이리함도 괴이치 아니한 일이라. --- 중략 --- 악한이 영채를 땅에 누일 때, 영채는 웬일인지 모르거니와 갑자기 대단한 무서움이 생겨 발길로 그의 가슴을 힘껏 차고 으아 하고 소리를 내어 울었다.(30-31면)

다음으로 무정한 사회나 무정한 세계에 살고 있는 무정한 사람들이나 무정한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무정한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언급은 중복된 부분을 제외하면 19회가 나타난다. 그 가운데 이형식과 관련된 언급이 15회가 나타나며, 간수와 관련된 것이 1회,

배명식과 관련된 것이 1회, 무정한 사람에 대한 것(무정한 사회와 중복)이 1회, 어별에 대한 것이 2회 등이 나타난다.

아— 내가 잘못함이 아닌가. 내가 너무 무정함이 아닌가. 내가 좀더 오래 영채의 거처를 찾아야 옳을 것이 아닌가. 설사, 영채가 죽었다 하더라도, 그 시체라도 찾아보아야 할 것이 아니던가. 그리고 대동강가에 서서 뜨거운 눈물이라도 오래 흘려야 할 것이 아니던가. 영채는 나를 생각하고 몸을 죽였다. 그런데 나는 영채를 위하여 눈물도 흘리지 않아. 아— 내가 무정하구나, 내가 사람이 아니로구나 하였다.(19면)

『그렇게 십여 년을 그렇게 지내다가 찾아왔는데 그렇게 무정하게 구시니까.』

‘무정하게’ 라는 말에 형식은 놀랐다. 그래서, 『무정하게? 내가 무엇을 무정하게 했어요?』

『무정하지 않구. 손이라도 따뜻이 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손을 어떻게 잡아요?』

『손을 왜 못 잡아요? 내가 보니까, 명채…….』

『명채가 아니라 영채야요.』

『옳지, 내가 보니까 영채 씨는 선생께 마음을 바친 모양이던데. 그렇게 무정하게 어떻게 하시오. 또 간다고 할 적에도 붙들어 만류를 하든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고 형식을 원망한다.

75

노파의 말에 형식은 더욱 놀랐다. 과연 자기가 영채에게 대하여 무정하였던가.(132면)

『벌써 황해바다에 떠나갔어! 자네 같은 무정한 사람 기다리고 아직까지 청류벽 밑에 있을 듯싶은가. 자 청요릿집에나 가세.』(137면)

『왜, 어느 새에…… 여보, 그런데 좀 만나 보고나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무정하오.’ 하고 썩 돌아서더니, 『아무려나 내립시오. 우리 집으로 갑시다』 한다.(176면)

형식은 과연 무정하였다. 형식은 마땅히 그때 우선에게서 끈 돈 오 원을 가지고 평양으로 내려갔어야 할 것이다. 가서 시체를 찾아 힘 미치는 데까지는 후하게 장례를 지내었어야 할 것이다.(178면)

『이형식 씨가 꽤 무정한 사람같이 생각이 되어요. 그래도 내가 죽으러 갔다면 좀 찾아라도 볼 것인데…… 어느 새에 혼인을 해가지고……』 하다가 병욱의 무릎에 자기의 이마를 대고 비비며, 『아이구, 언니,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해요』(187면)

『이 무정한 놈아, 영원히 저주를 받아라』 하고 달겨들 것 같다. 왜 그때에 평양 갔던 길에 더 수탐을 하여 보지 아니하였던가.(189면)

죽으려 한 것도 자기를 위하여, 살아 있으면서 살아 있는 줄을 알리지 아니한 것도 자기를 위하여 한 것임을 생각하매 자기의 영채에게 대한 태도의 너무 무정함이 후회된다.(190면)

면회소의 긴 칼을 찬 간수들이 무정한 눈으로 자기를 보며 쿵쿵 소리를 내고 지나가고, 어떤 시커먼 수염이 많이 난 간수가 영채를 보고 『너 울지 말아라, 울면 네 아버지 안 보일 테야』 하고 호령을 할 때, 영채는 그만 실망하고 무섭고 슬픈 생각이 났다. (34면)

신혼한 일 년이 차지 못하여 벌써 다른 계집에게 손을 대려 하는 그런 무정한 놈의 첩이 되어? 내 은인의 딸이? 못 될 일 이로다. 못 될 일 이로다 하였다.(51면)

십구 년 일생의 절반을 무정한 세상과 사람에게 부대끼고 희롱감이 되다가 매양에 그리고 바라던 이형식을 만나기는 만

났으나 정작 만나고 보니 이형식은 나를 건져 줄 것 같지도 아니하고……(69면)

차마 이 더럽고 죄 많은 몸을 하루라도 세상에 두기 하늘이 더럽고 금수와 초목이 부끄러워, 원도 많고 한도 많은 대동강의 푸른 물결에 더러운 이 몸을 던져 탕탕한 물결로 하여금 더러운 이 몸을 씻게 하고, 무정한 어별로 하여금 죄 많은 이 살을 뜯게 하려 하나이다.(93면)

탕탕한 물결로 하여금 이 몸의 더러움을 씻게 하고, 무정한 어별로 하여금 이 죄 많은 살을 뜯게 하려 하나이다.(100면)

영채가 살아가는 세상은 무정한 세상이고 영채 주변의 사람들인 친척들, 길에서 만난 악한, 간수, 배 학감, 형식 모두 무정한 사람들이다. 심지어 어벌까지도 무정한 존재이다. 그 가운데서 형식은 결코 영채에게 무정하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고향에 있을 때 형식은 영채와 혼담이 있었던 사이이다. 영채는 형식을 믿고 기다리면서 정절을 지킨 여인이다. 그런데 형식은 영채를 기적에서 빼내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영채가 선형과의 혼인에 방해가 될까 걱정하기까지 한다. 영채가 유서를 남기고 평양으로 떠난 뒤에도 진심으로 영채를 생각하고 영채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형식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하고 자신을 무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무정한 세상에 살고 있는 영채를 구원해줄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무정’이라는 용어는 나타나지 않지만 영채를 겁탈하려는 악한과 싸우다가 죽은 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개는 ‘악한을 물어 메뜨리고 주인에게 그 뜻을 알리려고 그 악한의 저고리 옷자락을 물어’와서 피를 흘리며 죽는다. 무정한 세상에서 ‘불쌍한 주인을 따라와 제가 그 주인을 위하여 원수 갚은 줄을 알리고 그 사랑하던 주

인의 발부리에서' 죽는다.²⁰⁾ 작가는 왜 은혜 갚는 개의 이야기를 삽입한 것일까? 영채가 악한으로부터 구원받는 상황을 개연성 있게 서술하면서 당시 조선이 얼마나 무정한 사회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개보다 못한 인간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춘원은 당시 조선을 왜 무정한 세상으로 보았는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의 『사랑인가』, 『옥중호걸』, 『곰』 등과 아마자끼 도시오의 『크리스마스 전날 밤』²¹⁾을 통해 유추한다면 일제의 식민화정책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춘원의 글에는 억압받고 불평등하게 살아가고 있는 조선인들의 모습이 서술되고 있고, 아마자끼 도시오의 글에는 자신들을 일등국민이라고 생각하면서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 사람들을 멸시하고 앞잡아보고 있는 일본인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²²⁾ 갑오농민전쟁 이후 일본 관헌은 동학 잔당들의 소탕을 빌미로 조선인들을 이전투구에 혈안이 되게 만들어 조선을 무정한 세상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었다. 춘원이 이 작품에서 125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무정한 조선인과 조선의 사회를 서술한 것은 일제의 동학 탄압과 민족 자본 해체로 인한 조선인의 비극적 삶을 재현하여 새로운 세상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3. 도산의 情誼敦修思想 수용과 유정한 사회에 대한 염원

『무정』에는 ‘동정’이라는 용어가 ‘무정’이라는 용어 다음으로 빈번

20) 하타노 세츠코, 『이광수, 일본을 만나다』, 최주한 역, 푸른역사, 2016, 31면.

21) 『帝國文學』, 1914.1.

22) 하타노 세츠코, 앞의 책, 53-54면.

하게 구사되고 있다. 총 23회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데, 동정을 살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1회를 제외하면 22회에 걸쳐 사용된 ‘동정’이란 단어는 정의돈수사상과 연결되어 있다. 443번에 걸쳐 언급되는 노파는 형식이 영채에게 무정한 사람이었음을 일깨워주면서 박 진사가 형식에게 얼마나 친애한 사람이었는가를 일깨워준다. 박 진사는 ‘위인이 점잖고 인자하고 근엄하고도 쾌활하여 어린 사람들도 무서운 선생으로 아는 동시에 정다운 친구로 알았었다. 그는 세상을 위하여 재산을 바치고 집을 바치고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목숨까지라도 바치려’ 한 사람이며, 자신은 ‘특별히 박 진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²³⁾ 형식은 노파에 의해 점차 영채에게 친애와 동정을 느끼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억압받고 차별받고 사랑받지 못하는 모든 조선인들에게 친애와 동정을 느끼게 된다. 노파를 통해 형식은 정의가 되살아나며, 우리 사회를 무정한 사회에서 유정한 사회로 변모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인물로 성장해간다. 형식이 1961번, 영채가 1261번, 선형이 447번, 우선이 320번, 병욱이 191번, 배학감이 70번, 순애가 52번, 박진사가 39번 언급되고 있는 점에서 이 소설에서 노파의 역할은 주인공인 형식이나 영채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선형과 비슷한 비중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 혹은 모범촌에 대한 이야기는 『무정』을 발표하기 전부터 나타난다. 춘원은 1907년 2월 도쿄의 대한유학생회에서 초청한 도산의 애국연설을 듣고 감명을 받은 바 있다. 메이지학원 중학교 3학년 때의 일로 당시의 상황을 춘원은 ‘내가 선생을 정말 좋게 만난 것은 바로 이때’라고 밝히고 있다.²⁴⁾ 이후 춘원은 1900년대부터 시작된 도산의 애국운동과 유정한 사회 만들기 운동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며, 도산의 권유를 받아 만들어진

23) 『이광수전집 1』, 22면.

24) 『이광수전집 8』, 우신사, 1979, 502면.

용동의 오산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아 생활하면서 모범촌을 체험하였고,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에 대한 생각을 러시아 이주시기에 쓴 글들이나 이후 수많은 글들에서 피력하고 있다. 이들은 춘원의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고 도산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바 크다. 춘원의 『도산 안창호』²⁵⁾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도산은 김현진에게 한학과 성리학을 배우던 중 1894년 청일전쟁을 목격하고 타국의 전쟁터가 되어버린 조국의 현실에 안타까워하다가 일본군이 동학농민전쟁에 참전하여 의병들을 학살하고, 전국 각지의 동학도들을 색출하여 탄압하기에²⁶⁾ 이르자 국민들이 도덕, 지식, 단합, 애국심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고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경하여 선교사 언더우드가 운영하는 구세학당에 입학하였다. 당시 구세학당에서는 ‘배우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 먹고 자고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으니 우리 학교로 오라’고 선전하고 있었다. 도산은 구세학당에서 2년간 교육을 받았고, 제중원에서 일했다.²⁷⁾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에서 활동하다가 언드우드의 주선으로 1902년 미국 유학을 떠난다.

도산은 학업을 위해 미국에 갔으나 당시 ‘미국에 이민한 한국 동포들의 현상’에 충격을 받아 ‘학창에 전념할’ 수 없었다. 한인친목회를 조직하여 조선인 이주자들의 이기적이고 무정한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도산의 유정한 사회 만들기는 이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술선수범하여 청소도 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방

25) 1947년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의 요청으로 『도산 안창호』를 저술하여 출판하였다. (『이광수전집 7』, 우신사, 1979, 116-218면.)

26) 동학농민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본군은 동학의 잔당들을 색출하는 일을 1900년대 초까지 계속하였다. 도산과 춘원의 이주 계기도 동학도 탄압 때문이었다. 당시 체포된 동학도들은 국도 1호선 구간의 공사에 동원되기도 했다. 그들이 만든 신작로는 전쟁 물자를 운반하거나 군대 이동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푸른 숲길 만드는 목포 폐선부지』, 『전남일보』, 곡성군 홍보협력계, 2009.05.21)

27) 송현호, 『『무정』의 이주담론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 114면.

법도 가르쳐주면서 식민지 조선인이 아닌 독립국 조선인이 되는 길을 찾으면서 1905년에는 한인공립협회를 창립한다.²⁸⁾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귀국하여 신민회를 조직하고, 조선인의 실력양성을 주장하는 연설을 하면서 전국 각처를 돌아다녔다. 1907년 2월에는 대한유학생회 초청으로 도쿄에 가서 애국연설을 한 바 있다. 미국 체험과 조선의 현실을 감안할 때 무정한 사회인 조선을 개혁하여 유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력양성론을 역설했을 가능성이 크다. 백성들을 교육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각도에 대성학교를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평양에만 설립한 것²⁹⁾이나 모범촌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 그 증거가 될 수 있다. 이승훈이 정주시 오산면 용동에 자기 집안의 마을을 조성하던 중 1907년 7월 도산의 연설회에서 ‘나라가 없고서 일가와 일신이 있을 수 없고, 민족이 천대를 받을 때에 나 혼자만 영광을 누리 수가 없소하는 구절을 듣고 도산과 면회하여 학교를 세우고 동회를 조직하여 조선인들이 유정하게 살 수 있는 모범촌을 만들라는 권유를 받아들여 ‘자기 주택과 서재의 공사를 중지하고 그 재목과 기와를’ 이용하여³⁰⁾ 12월 정주시 갈산면 익성동에 오산학교를 설립했다. 이는 국민회와 흥사단의 기본 정신과 상통한다. 공립협회를 확대한 것이 미주국민회, 대한인국민회이다. 흥사단은 도산 안창호 필생의 사업이요, 민족운동의 근본 이론이요, 실천이다. 도산은 경술년에 미국으로 돌아가 국민회를 통일하고 확장하고 강화하였다. 1912년 도산은 로스앤젤리스에서 송종익에게 흥사단 약법을 보여주었다.³¹⁾ 약법에는 ‘무실 역행으로 생명을 삼는 충의 남녀를 단합하여 정의를 돈수하며 덕,

28) 『이광수전집 7』, 118-119면.

29) 위의 책, 125면.

30) 위의 책, 127면.

31) 위의 책, 179면.

체, 지 삼육을 동맹 수련하여 건전한 인격을 지으며 신성한 단체를 이루어 우리 민족의 전도번영의 기초를 수립함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용동의 모범촌에서 확신을 얻은 도산은 모범촌 조성 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그 후보지를 찾아다닌 바 있다.³²⁾ 무정한 세상을 유정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도산의 모범촌은 송태 시절의 집이 모델이었다.³³⁾

따라서 도산은 오랫동안 연설이나 강연에서 무정한 사회를 유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하며 정의돈수사상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도산의 정의돈수사상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미국 이주 이후 오랜 기간에 걸쳐 유정한 사회를 만들려는 과정에서 다듬고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완성된 것을 정리하여 1926년 『동광』에 발표한 글이 바로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情誼敦修의 의의와 요소』³⁴⁾라는 글이다.

도산이 생각하는 유정한 사회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신뢰하고 정을 느끼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공동체로, 정의돈수사상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이다. 도산이 말하는 정의란 '친애와 동정의 결합'이다. 친애가 '어머니가 아들을 보고 귀여워서 정으로써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동정은 '어머니가 아들이 당하는 고(苦)와 낙(樂)을 자기가 당하는 것같이' 여기는 마음이다. 도산은 인류

32) 도산은 1923년 독립운동 근거지 및 이민자들을 위한 이상촌 건설을 구상하였고, 1924년 북중국 화북지역과 만주 방면을 답사하고 1927년에는 '만주 길림방면에서 이상촌 후보지를 선정하려고 다니기도' 했다. 본보기 모범촌을 통해 '도산의 평소의 교육 철학에 의거하여 농촌 생활 내지 농촌 도시 생활의 표본을 만들려고' 했다. '모범 부락과 직업학교를 각 도에 두어 전국 한 면에 한 사람씩 선발하여' 교육을 하여 그들이 돌아가 '농촌진흥운동을' 전개한다면 농민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민족주의운동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다. (송현호, 『『흙』에 구현된 정의돈수사상과 유정한 사회에 대한 연구』, 『현대소설연구』 69, 2018.3, 18면)

33) 『이광수전집 7』, 207-208면.

34) 『동광』, 1926.1, 29-30면.

가운데 ‘가장 불행하고 불상한 자는 무정한 사회에 사는’ 사람이요 가장 ‘다행하고 복 있는 자는 유정한 사회에 사는’ 사람이라고 했다. 또한 ‘유정한 사회는 태양과 우로를 받는 것 같고 화원에 있는 것 같’지만, ‘무정한 사회는 큰 가시밭과 같아 사방에 괴로움뿐이므로 사람은 사회를 미워하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정의가 있어야 단결도 되고 민족도 흥하는 법이’라고 했다. 그런데 당시 조선은 무정한 사회였다.³⁵⁾ 도산은 조선 민족이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여 지방색이 짙고, 당파싸움을 하고, 서로 단합하지 못하는 민족적 질병을 지닌 것으로 규정하였다.³⁶⁾

도산의 무정한 사회를 유정한 사회로 바꾸려는 노력은 춘원의 소설에 아주 다양하게 나타난다. 『삼봉이네 집』에서는 직접적인 투쟁을 통해 무정한 세상을 유정한 세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으며, 『흙』에서는 살여울과 검블랑과 같은 모범촌을 조성하여 무정한 사회를 유정한 사회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 『무정』에서는 ‘유정’과 ‘무정’이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구사되고 있으며, 무정한 세상을 변혁시킬 페스탈로치와 같은 인물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교육학의 요람인 미국의 시카고대학까지 등장한다.

형식과 선형은 지금 미국 시카고대학 사 년생인데 내내 몸이 건강하였으며, 금년 구월에 졸업하고는 전후의 구라파를 한번 돌아 본국에 돌아올 예정이며, 김장로 부부는 날마다 사랑하는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벌써부터 돌아온 후에 할 일과 하여 먹일 것을 궁리하는 중(208면)

『무정』을 집필하던 시기가 춘원의 제2차 일본 유학 시기인 와서

35) 송현호, 『『흙』에 구현된 정의돈수사상과 유정한 사회에 대한 연구』, 앞의 책, 18면에서 재인용.

36) 안창호,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 情誼敦修의 의의와 요소』, 『동광』, 1926.1, 29-30면.

다대학 재학 중임에도 『무정』 125회까지의 형식은 제1차 일본 유학 시절인 메이지학원 중학교의 체험으로부터 오산학교 교사시절까지의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126회의 형식은 도산의 미국 체험을 바탕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따라서 ‘무정’한 사회를 ‘유정’한 사회로 바꾸는 일이 도산이 바라는 바였다. 『무정』을 집필하던 당시 춘원은 도산이 조선을 변혁시키기 위해 교육을 강조하고 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무정』 115회에 보면 이형식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부분이 나온다. 그는 사랑과 문명 그리고 인생에 대해 잘 모른다.

자기가 오늘날까지 여러 학생에게 문명을 가르치고, 인생을 가르친 것이 극히 외람된 일인 줄도 깨달았다. 자기는 아직도 어린애다. 마침 어른 없는 사회에 처하였으므로 스스로 어른인 체하던 것인 줄을 깨달으며 스스로 부끄러운 생각도 난다.(192면)

나는 조선의 나갈 길을 분명히 알았거니 하였다. 조선 사람의 품을 이상과, 따라서 교육자의 가질 이상을 확실히 잡았거니 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필경은 어린애의 생각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아직 조선의 과거를 모르고 현재를 모른다. 조선의 과거를 알려면 우선 역사 보는 안식(眼識)을 길러 가지고 조선의 역사를 자세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조선의 현재를 알려면 우선 현대의 문명을 이해하고 세계의 대세를 살펴서 사회와 문명을 이해할 만한 안식을 기른 뒤에 조선의 모든 현재 상태를 주밀히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조선의 나갈 방향을 알려면 그 과거와 현재를 충분히 이해한 뒤에야 할 것이다. --- 중략 --- 우리들은 배우러 간다. 네나 내나 다 어린애이므로 멀리멀리 문명한 나라로 배우러 간다.(193면)

형식은 무정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미국으로 떠나면서 그 길이

영채는 말할 것도 없고 선형과 병욱을 구원하는 길이면서 궁극적으로는 조선을 구원할 길임을 인식하게 된다. 영채에게 가졌던 친애와 동정은 작품 말미로 가면서 억압받고 차별받고 사랑받지 못한 조선인으로 확대되어 간다. 형식을 통해 드러나는 도산의 정의돈수사상은 춘원이 ‘무정’한 사회를 ‘유정’한 사회로 만들려는 전략임이 드러난다.

그런데 형식은 ‘자기와 선형과, 또 병욱과 영채와 그 밖에 누군지 모르나 잘 배우려 하는 사람 몇 십 명, 몇 백 명이 조선에 돌아오면 조선은 하루 이틀 동안에 갑자기 새 조선이 될 듯이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러한 추상적 세계 인식에도 불구하고 춘원은 식민지 수탈 정책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교육하여 일제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자립 갱생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 이형식과 선형을 미국으로 보내고, 병욱과 영채를 일본으로 보낸 것이다. 조선의 밝은 앞날은 교육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작가는 ‘우리는 더욱 힘을 써’ ‘큰 학자, 큰 교육가, 큰 실업가, 큰 예술가, 큰 발명가, 큰 종교가’를 배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금년 가을에는 사방으로 돌아오는 유학생과 함께 형식, 병욱, 영채, 선형 같은 훌륭한 인물을 맞아들일 것이니’ 아주 기쁘다고 했다.

어둠던 세상이 평생 어두울 것이 아니요, 무정하던 세상이 평생 무정할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밝게 하고, 유정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가깝게 하고, 굳세게 할 것이로다.(209면)

인용문에는 다소 추상적이고 낙관적인 세계 인식이 드러나 있음에도 일제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우리의 힘으로 유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선의 인재들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와세다대학 재학 시절 일본인의 추천으로 『매일신보』에 연재하기 시

작한 소설이기에 여러 가지로 제한이 있었을 것임에도 일본과 구미 지역을 변별적으로 설정한 것이나 형식과 선형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것은 ‘약육강식을 일삼는 군국주의자들의 세상인 일본이 아니라 평화주의자인 월슨이 있는 미국으로 간다는 의미’도 있고, 일본인들이 메이지유신 이후 보여준 구미지역과 대등하다는 일류의식과 동아시아인들에 대한 차별의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의 노출일 수도 있다.³⁷⁾ 따라서 춘원의 일본관에 대해서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신문 연재 100주년에 즈음하여 『무정』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문학사적 의의도 새롭게 정립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제3세대 연구자들은 도산과의 관련성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춘원이 무정한 세상에서 유정한 세상 만들기 혹은 억압과 차별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으려는 의지를 심어주고 있다는 새로운 평가를 내놓고 있다.

『무정』에는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일제 강점기에 이르는 조선의 열악한 현실이 잘 드러나 있고, 일제의 억압으로 무정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영채의 삶이 생생하게 형상화되고 있다. 이 작품에서 ‘무정’이라는 용어는 제목을 포함하여 30회에 걸쳐 등장하는데 모두가 영채가 살고 있는 세상과 영채가 처한 현실 그리고 영채를 구원하지 못한 형식의 상황에 집중되어 있다. 춘원이 당시 조선을 무정한 세상으로 본 것은 일제의 식민화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당시 조선인들

37) 이에 대해서는 『『무정』의 이주담론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113-116면)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기에 여기에서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한다.

은 무정한 세상에서 자유롭지도 평등하지도 않은 삶을 살고 있었다.

『무정』에는 ‘동정’이라는 용어가 ‘무정’이라는 용어 다음으로 빈번하게 구사되고 있다. 총 23회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데, 동정을 살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1회를 제외하면 22회에 걸쳐 사용된 ‘동정’이란 단어는 정의돈수사상과 연결되어 있다. 노파는 형식이 영채에게 무정한 사람이었음을 일깨워주면서 박 진사가 형식에게 얼마나 친애한 사람이었는가를 일깨워준다. 노파를 통해 형식은 정의가 되살아나며, 우리 사회를 무정한 사회에서 유정한 사회로 변모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인물로 성장해간다. 춘원은 무정한 세상인 조선을 유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도산의 정의돈수사상을 수용한다. 식민지 수탈 정책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교육하여 일제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자립 갱생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조선의 지식인들을 양성하기 위해 형식을 교육학의 요람인 시카고대학으로 보내고 많은 유학생들을 구미 지역으로 보낸다. 도산과 춘원의 미국 지향성은 ‘선진화된 교육의 자양분을 공급받을 공간’을 통해 구체화된다. 그들은 무정한 사회인 조선은 미국과 같은 유정한 사회로 만들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무정』은 지금까지의 평가와 달리 평화에 대한 염원과 유정한 세상에 대한 염원을 담은 소설로 볼 수 있다. 억압과 차별 그리고 미움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등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세상에 대한 염원을 그린 소설, 당대의 징후를 포착하여 새로운 전망을 제시한 소설이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자료

- 『이광수 전집 1』, 우신사, 1979.
『이광수 전집 6』, 우신사, 1979.
『이광수 전집 7』, 우신사, 1979.
『이광수 전집 8』, 우신사, 1979.
『이광수 전집』 별권, 우신사, 1979.

2. 단행본

- 김동인, 『춘원 연구』, 신구문화사, 1956.
김영민, 『한국근대소설의 형성과정』, 소명, 2005.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①』, 한길사, 1986.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②』, 한길사, 1986.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③』, 한길사, 1986.
류보선, 『한국문학의 유명들』, 문학동네, 2012.
송현호, 『한국현대문학의 이주담론 연구』, 태학사, 2017.
윤홍로, 『이광수 문학과 삶』, 한국연구원, 1992.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흥성사, 1984.
이재선, 『이광수 문학의 지적 편력』,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0.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4』, 지식산업사, 1994.
하타노 세츠코, 『이광수, 일본을 만나다』, 최주한 역, 푸른역사, 2016.

3. 논문

- 김경수, 『현대소설의 형성과 검탈-『무정』의 근대적 재론』, 『한국 현대문학과 근대성의 탐구』, 새미, 2000, 121면.
김지영, 『『무정』에 나타난 ‘사랑’과 ‘주체’의 근대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6호, 2005.
류수연, 『응접실, 접객공간의 근대화와 소설의 장소-이광수의 『무정』과 『재생』

- 을 중심으로, 『춘원연구학보』 11, 2017, 7-32면.
- 리범수, 「중국에서의 『무정』에 대한 평가와 문학사적 의의, 『춘원연구학보』 10, 2017, 107-134면.
- 방민호, 「무정 독해의 국면들과 무정·유정의 사상, 『춘원연구학보』 10, 2017.6.
- 서영채,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사랑의 양상과 의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2.
- 송현호, 「『무정』의 이주담론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 『한국현대소설』 54, 2017.3, 105-128면.
- 송현호, 「문학이란 무엇인가-춘원의 삶과 문학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67, 2017, 5-30면.
- 송현호, 「춘원의 『사랑인가』에 나타난 이주담론의 연구, 『韓國學報』, 2017.1, 3-29면.
- 송현호, 「춘원의 이주담론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51, 2016.6, 23-42면.
- 송현호, 「흠에 구현된 도산의 정의돈수사상과 유정한 사회에 관한 연구, 『현대소설연구』 69, 2018.
- 이영아, 「1910년대 『매일신보』 연재소설의 대중성 획득 과정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23, 2007.12.
- 이유진, 「일본에서의 『무정』에 대한 평가와 문학사적 의의, 『춘원연구학보』 10, 2017, 71-106면.
- 장영우, 「『무정』의 맥락화와 문학사적 의의, 『춘원연구학보』 10, 2017, 11-42면.
- 진상범, 「이광수 소설 『무정』에 나타난 유럽적 서사구조, 『독일어문학』 제17집, 2002.
- 최선호, 「『무정』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의식, 『춘원연구학보』 8, 2015, 83-108면.
- 최주한, 「‘번역된 (탈)근대론’으로서의 『무정』 연구사, 『한국근대문학연구』 27, 2013, 287-313면.
- 최혜림, 「『무정』 탄생 100년, 번역사 고찰, 『춘원연구학보』 11, 2017, 33-60면.

하타노, 「『무정』의 문체와 표기에 대하여」, 『제24屆중한문화관계국제학술연토회』, 2016.12.

허병식, 「한국 근대소설과 교양의 이념」,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05.

황정연, 「여성주의적 시각과 『무정』 연구사」, 『춘원연구학보』 11, 2017, 61-92면.

황정현, 「이광수 소설 연구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Abstract>

Dosan's idea of enlightenment of friendship
and a heart-warming society realized in
『Mujeong』

Song, Hyun-Ho

Celebrating 100th anniversary of 『Mujeong』, the evaluation of 『Mujeong』 has changed and its significance in the literary history is also about to change. Recently, the third generation of modern literary scholars is reevaluating their relevance to Dosan, giving a new evaluation that Chunwon was building a well-founded world in a heartless world, or building a will to seek peace from oppression and discrimination.

In 『Mujeong』, the poor reality of Joseon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until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s well known, and the life of Park Young-chaе, who lives in a heartless society due to Japanese repression, is vividly shaped. In this work, the term 'amorphous' appears over 30 times, including the title, and it focuses on the situation in which all people are living in the spiritual life, the reality in which the spiritual life exists, and the situation in which the spiritual life is not saved. It is not unrelated to the colonization policy of the Japanese colonialism that Chunwon saw Chosun as a heartless world at the time. At that time, the Koreans lived a life that was neither free nor equal.

In 「Mujeong」, the term "sympathy" is often followed by "amorphous". It is used 23 times in total. The word "sympathy", which is used 22 times, except for one which means to look for sympathy, is connected with the idea of justice. The old woman reminds her that the form was a heartless person for Young-chaе, and reminds her how dear Park was. Through old age, the form revives justice and grows into a person who plays a role in transforming our society from a heartless society to a well-founded society. Chunwon accepts Dosan's idea of enlightenment of friendship in order to make Chosun a heart-warming society, by describing Chosun in 「Mujeong」 as a place of a heartless society where heartless people live. To educate people who have lost their place of life by the colonial policy and to make them Pestalozzi of Korea that can give the power to the nation to recover from the oppression of the Japanese imperialism and rehabilitate itself, he sent Lee Hyungshik to the University of Chicago, the cradle of education. Especially, the orientation towards the US Dosan and Chunwon is embodied through 'space for supply of nurturing of advanced education necessary for transformation of Chosun and enlightenment of the people'. It was intended to transform Chosun, a heartless society, into a well-established society like the United States.

From this perspective, 「Mujeong」 can be seen as a novel about the desire for peace and the well-deserved world, unlike it was in the previous evaluation. It is a novel that seeks the desire for a world free from oppression, discrimination, and hatred, and a world of freedom, equality and love, a novel that captures the signs of the time and presents new prospects.

Key words: discourse of migration, heartless society, heart-warming



society, Dosan, idea of enlightenment of friendship

투 고 일 : 2018년 5월 30일 심 사 일 : 2018년 6월 1일-6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8년 6월 15일 수정마감일 : 2018년 6월 26일